86개단체서 2만4천명 참여

基礎硏究 활성화 촉진위해

科總, 과학기술인 서명운동 전개

科學技術處가 올해를 「基礎科學 진흥의 元年」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2천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 과학기술 기초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서명운동이 科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기초과학분야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투자만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천년대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에 진입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천1년까지 기초연구투자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出捐 적립하여 최소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88歲計剩餘金 3조 3천억원가운데 3천억원을 기초연구 활성화자금으로 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科總은 앞으로 이 서명운동을 전국의 모든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까지 확산시켜 기초연구활성화에 가용자원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인데 5월15일현재 한국물리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수학회 등 17개학회와 서울대, 부산대 등 69개 대학에서 2만4천여명의 과학기술자가 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기초연구 활성화자금 3천억 조성

出捐연구기관장들 관계기관에 建議

韓國科學技術院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 및 부설연구소장 등 20명은 최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금으로 3천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과거 20여년간 국내산업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선진기술을 일괄도입하는 Turn key Bas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고 전제하고 『국내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모방기술에만 의존, 창의적인 신기술의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知的소유권, 원貨절상, 시장개방 압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공우주, 생명공학, 신소재, 정밀기계, 정밀화학, 반도체, 전기·전자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기초과학연구의 투자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의 근간으로 국민복지사회의 조기구현에 필수적인 시책이라고 전제, 國家百年大計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모방기술에서 창의적 신기술로의 전환은 기초과학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고 ▲기초과학연구 능력을 구축하지 않고는 첨단기술 개발의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고급연구두뇌를 갖춘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한 大學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구의 활성화는 고급두뇌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소와의 협동연구를 촉진시켜 硏·學협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 노벨상의 도전도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89년도에는 '88년도 歲計剩餘金중에서 3천억원을 기초과학연구 활성화자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탁월한 耐熱·耐蝕 새금속 開發

「KM 1557」명명 - 美 特許획득

科技院 崔炷박사팀, 국책과제 8년 개가

섭씨 1천도내외에서도 산화·부식되지 않는 超耐熱·耐蝕鍛造合金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崔炷박사팀(55·금속공학연구부장)은 니켈에다 크롬, 텅스텐, 알루미늄, 티타늄, 탄탈륨등을 첨가시켜 신금속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 최근 미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5월2일 발표했다.

「KM1557」이라 명명된 이 신금속은 섭씨 1천도에서 1백시간동안 공기속에 두어도 전혀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온에서 황산, 질산, 염산등 강산에 담가도 거의 부식이 안되는 우수한 합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섭씨 1천도에서 5kg/㎟ 응력하에 2백80시간이 지나서야 파괴현상이 일어나는등 강도가 뛰어나다는 것.

이 금속은 단조성, 가공성, 용접성도 우수해 발전용가스터빈, 화학용고온반응로, 제트엔진부품, 화학석유 공업용 파이프재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崔박사팀은 지난 78~79년 2년간 국책연구과제로 수행된 항공기 가스터빈 블레이드用 합금개발을 바탕으로 80~82년과 83~87년간에 걸쳐 국책과제로 본격적인 초내열 단조합금개발연구끝에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이다.

南極과학기지 소개

海洋研, 사진전 갖고

南極 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과 연구활동을 담은 대한민국 남극연구단 南極사진전이 4월6일부터 18일까지 서울투자금융빌딩 10층 하늘공원에서 열려 해양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탐구의욕을 불러일으켰다.

海洋연구소가 과학기술처와 언론기관등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1,2차 하계연구단, 1차동계연구단의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기지건설 장면, 자연풍광, 동·식물생태, 기지생활상을 담은 2백점의 남극관련사진이 선을 보였다.

氣象사진 130점 전시

氣象臺, 기상사진전 開催

中央氣象臺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4월8일부터 18일까지 제일백화점 4층전시실에서 제6회 氣象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중앙기상대 직원들이 포착한 특이한 기상현상사진 130점이 전시되고 기상관련 비디오의 상영 및 자동관측장비등 기상측기 일부가 소개됐다.

새 산화물 高溫초전도체 開發

浦項공대·산업과학기술연 공동연구팀

浦項공대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高溫超傳導體 공동연구팀(팀장 李東翊 포항공대물리학과교수)은 최근 세륨(Ce)을 포함한 새로운 산화물체인 고온초전도체 개발에 성공, 국내 초전도체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이 새로운 산화물 고온초전도체는 네오디늄(Nd), 세륨·구리와 산소를 포함한 것으로 종래의 초전도체보다 낮은 온도인 22K(K는 섭씨 영하 273도가 절대온도라는 것을 밝혀낸 캘빈의 이니셜)에서 초전도현상이 일어나지만 종래의 초전도현상을 만들어내는 입자가 陽의 전기를 띤것에 반해 陰의 전기를 띤 전자가 초전도현상의 원인임을 밝혀냈다. 또 구조도 종래의 초전도체와 달리 평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常溫 核融合 연구방향 모색

科總, 관련전문가 초청 學術會議 개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5월20일 최근 國內外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常溫 核융합에 관한 학술회의를 한국과학기술원 존슨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물리학회를 비롯 한국화학공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금속학회, 대한전기학회등 관련학회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상온핵융합 현상과 앞으로의 연구방향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해외에서의 연구현황 ▲중수소 전극현상 ▲핵융합이론 ▲전기화학적 실험 ▲방사선측정시험 ▲앞으로의 방향등 6개 Session별로 관련 전문가 2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루어진 연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Session 1 해외에서의 연구현황

좌장 : 박원희(한국과학기술원 연구본부 소장)

▲Fleischmann과 Pons의 상온 핵융합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설 = 주재백(한국과학기술원 화공부) ▲Jones의 상온 핵융합 연구결과에 대한 해설 = 조병원(한국과학기술원 화공부) ▲미국 물리학회에서의 상온 핵융합 Session = 이동녕(포항공대 물리학과) ▲미국 전기학회에서의 상온 핵융합 Session = 변종홍(한국과학기술원 화학부)

◇Session 2 중수소 전극현상

좌장 : 강홍열(한국표준연구소연구위원)

▲수소전극의 특성 = 최규원(서울대 화학과) ▲금속수소화합물의 특성 = 이재영(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중수소전극내에서의 Reaction Flux = 윤창구(한국과학기술원 화공부) ▲국가발전과 기초과학 = 이상희(과학기술처장관)

◇Session 3 핵융합이론

좌장 : 이병호(한국과학기술원 핵공학과 교수)

▲(고온) 핵융합연구현황 = 최덕인(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D_2+T_2 혼합물에서의 뮤온의 수명 = 이광필(한국표준연구소 양자물리실) ▲저온 핵융합 확율계산을 위한 모형연구 = 민동필(서울대 물리학과) ▲팔라디움속에서의 D_2형성과 핵반응 = 장기주(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팔라디움의 Octahedral Site에 있는 수소원자의 모델 = 김호징(서울대 화학과)

◇Session 4 전기화학적 실험

좌장 : 백운기(서강대 화학과교수)

▲상온 핵융합반응 = 이규호(한국화학연구소) ▲금속전극내에서의 전기화학적 핵융합 = 윤경석(한국과학기술원 화공부) ▲팔라디움 전극에서 중소의 전기분해 = 김하석(서울대 화학과)

◇Session 5 방사선 측정실험

좌장 : 윤용구(한국과학기술원교수)

▲방전방법에 의한 상온 핵융합 = 정기형(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전기화학 Cell에서 방출되는 2.2Mev γ선측정 = 박영우(서울대 물리학과) ▲전기화학 Cell에서 방출되는 γ선측정 = 정진욱(포항공대 물리학과) ▲전기화학 Cell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측정 = 신승애(이화여대 물리학과) ▲저준위 중성자검출 = 황철구(한국에너지연구소 핵융합연구실)

◇Session 6 앞으로의 방향

좌장 : 윤창구(한국과학기술원 화공부장)

▲종합토론

"日 東大寺 불상은 韓國人 솜씨"

咸仁英박사, 科總초청강연회서 밝혀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4월26일 과총회의실에서 日本 東京大 객원교수로 있는 咸仁英박사(64·기계공학)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咸박사는 「新羅·百濟시대의 과학기술이 日本고대문화에 미친 영향」이란 강연을 통해 日本 奈良 東大寺의 불상은 세계 최대의 鑄造佛로 百濟에서 건너간 國君麻呂가 만든 것으로 日本이 세계에 자랑하는 명품이 한국인의 과학기술로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또 日本 國寶1호인 半跏思惟像은 재료가 赤松으로 당시 일본에는 적송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우리의 青銅製 반가사유상과 모습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역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꼽았다.

또한 1천3백년전 지어진 첨성대가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학적곡선」과 「耐震性」까지 고려한 구조라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고 석굴암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화와 대칭을 생각한 신라인의 기하학적인 사고가 日本에 전해져 고대문화를 이루게 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咸박사는 日本文化에 끼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연구되지도 않고 있음을 안타까와 하면서 컴퓨터등 현대과학이 없던 시기에 이룩한 조상들의 창조적업적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8년부터 美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지금은 日本 東京大 첨단과학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는 咸仁英박사는 5월1일 출국했다.

8개 주요기술 소개

産業技術開發 심포지움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회장 金採謙)는 과학의 달을 맞아 4월26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센서기술」을 비롯한 올해 주목을 받을 8개 주요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기술개발 大심포지움을 가졌다.

8개분야별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센서기술 = 丁炯鎭(한국과학기술원 세라믹연구부) ▲케이블 TV개발기술 = 陳庸玉(경희대 전자공학과교수) ▲자동차자동화기술 = 李潤根(한국지멘스 벤딕스社 사장) ▲컴퓨터그래픽스의 정밀화학분야 응용기술 = 柳聖殷(화학연구소 유기화학3실) ▲FMS(가변생산시스템)운용기술 = 李厚祥(기계연구소 자동화연구부부장) ▲고분자 분리막기술 = 金殷永(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고분자연구부) ▲하이브리도마기술 = 崔仁成(한국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 ▲슈퍼미니컴퓨터개발기술 = 吳吉祿(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기술연구단)

제2회 韓國科學賞 수상후보자

5월말까지 科學財團서 신청받아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등 自然科學분야의 주요원리를 구명하여 학문발전에 획기적인 기여을 한 연구자를 발굴, 포상하는 제2회 韓國科學賞 시행계획이 확정·공고됐다.

韓國科學財團(이사장 鄭根謨)은 국내의 교수직 및 연구직에 종사중인 한국과학자 및 한국계 과학자를 대상으로 5월31일까지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고 있다.

연구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으로 연구보상비 5천만원이, 연구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연구수행비 年 2천만원씩 3년간)이 수여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학재단 사업부조성과(042-861-8831~6)로 문의할것.

國家 基幹전산망사업 체신부서 주관
세부사업은 관계기관서 전담추진

행정·금융·교육·국방·공안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앞으로는 체신부 주관하에 추진된다.

과기처, 체신부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체신부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추진계획」 결정을 확인한데 이어 청와대의 최종결재까지 받음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주체가 종전 대통령비서실에서 체신부로 바뀌어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금까지 맡아오던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체신부장관이 맡게되고 관련운영위원회도 체신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국가기간전산망 추진주체가 체신부로 넘어가드라도 체신부는 기술 및 운용방법을 비롯한 총괄업무만을 맡고 세부사업은 각 해당부처 또는 관계기관이 전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전산망은 총무처, 금융전산망은 금융기관, 교육전산망은 국·공립대학교 및 출연연구소, 국방전산망은 각 군과 국방관련기관, 공안전산망은 안기부등 공안관계기관에서 현재대로 맡아 진행한다.

87년도 노벨化學賞수상자 「렝」교수 초청 강연회

韓國科學技術院는 87년도 노벨化學賞수상자인 프랑스의 「장 마리 렝」교수(58·프랑스大)를 초청, 「超分子화학의 전망」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4월10일 동부지역대강당에서 科技院의 碩·博士과정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이번 강연에서 렝교수는 공유결합에 기초한 기존의 분자화학의 개념을 넘어서서 분자의 receptor와 substrate의 선택적인 결합으로 분자認知기능을 갖는 超分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초분자화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효소활동의 기능을 갖는 분자촉매의 인공적인 합성, 선택적인 분자의 인지와 전달 그리고 초분자 수준에서의 정보처리기능을 갖는 초분자시스템의 설계를 가능케할 것으로 전망했다.

렝교수는 또 11일에는 화학분야의 교수와 연구원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超分子촉매와 전달과정」에 대한 전문강연을 갖고 초분자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자의 인지, 촉매 및 전달과정과 함께 선택적인 분자촉매, 전달촉매의 설계와 그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긴잎쇠물두레나무」 智異山서 첫 發見
自然生態系 전국조사결과 밝혀져
천연기념물 「미선나무」는 扶安서 自生확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온 긴잎쇠물푸레나무가 慶南 山淸郡 智異山 중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한 忠北 鎭川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미선나무가 全北 扶安郡 邊山面 中溪里 신전부락과 上西面 정촌리일대에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청이 서울대 鄭英昊교수등 전문학자와 조사보조원등 1백65명에게 용역을 의뢰, 실시한 「88자연생태계 전국조사」결과 밝혀진 것.

환경청이 오는 90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 86년부터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의 제3차연도인 지난해 식물분야 조사결과, 특정야생식물 59종 가운데 멸종위기종과 감소추세종으로 흑난초와 끈끈이주걱이 각각 출현했으며 희귀종으로는 개상사화등 9종, 특산식물은 솜다리(일명 에델바이스)등 12종이 출현했다.

긴잎쇠물푸레나무의 자생을 첫 확인한 경상대 임학과 金三植교수는 자신의 성을 붙여 「Fraxinus sieboldiana var longifolia Kim」으로 명명했다.

獨島에 科學시설물 設置

科技處, 無人측후소·日光 측정장치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인 獨島에 無人측후소와 태양전지를 이용한 자동日光측정시스템 장치가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다.

科技處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장비중 일사량측정시스템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吳正茂박사팀이 특정연구비 4천만원을 들여 개발, 제작한 것으로 태양전지 자가발전으로 動力을 얻도록 고안, 無人상태에서도 햇빛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할 수있게 되어 있다.

독도에서 측정된 일사량자료는 동해안의 광역일사량 분포도제작 응용, 동해안 도서지방의 태양광발전 및 무인등대용 전원시스템 설치여부의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된다.

측후소의 경우도 기후의 변화를 측정, 자료화함으로써 어로작업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91년 貿易박람회 시설
대형 과학공원으로 활용

政府는 오는 91년 5월 忠南 大德에서 개최예정인 國際貿易 산업박람회를 단순 상품전시 행사로 끝내지 않고 박람회시설을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과학기술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을 박람회가 끝난이후 대형과학공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테마관, 공기업관, 기업독립관등은 영구시설로, 상거래공동관은 전시장 또는 박람회기념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처는 국제박람회의 과학기술전시관을 영구건물로 건립, 박람회 종료후에는 종합과학관으로 활용키로 하고 박람회 과학기술관의 건립 및 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과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新素材 연구개발 전망
「신소재 2000」심포지움서

韓國科學技術院은 5월10일 국제회의실에서 「新素材 2000」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금속, 고분자, 세라믹, 반도체재료등 미래형 첨단신소재의 연구개발 활동 및 현황을 보다 광범위하게 토의하고 전망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李祥羲과기처장관이 「21세기에 도전하는 소재혁명」에 관해 특별강연을 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丁炯鎭박사(제2의 石器시대를 연다), 崔炷박사(극한상황에 도전하는 신금속재료), 金霆燁박사(분자설계로 창조한 고분자재료), 閔碩基실장(제3의 물결과 반도체재료)이 주제강연을 했다.

群山에 방사능측정소
科技處, 5월부터 업무개시

科學技術處는 群山大내에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 5월10일부터 본격적으로 측정업무를 시작했다.

과기처는 자연 및 인공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 및 국민보호를 위해 67년이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등 전국 7개지역에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었다.

科技處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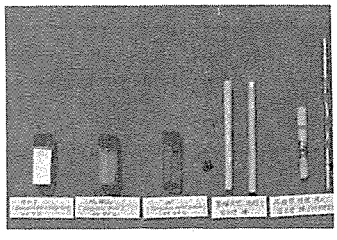
▲국립과학관장 黃慶灝 ▲기초종합연구조정관 景鍾哲 ▲기술정책관 柳熙烈(이상 승진) ▲인력정책관 郭鍾善 ▲중앙기상대 기획국장 張洙瑛(이상 전보) 以上 4월17일자 ▲원자력국 방사선과장 李萬基(이상 승진) ▲기획총괄담당관 金勝漢 ▲기술제도담당관 崔鴻植 ▲인력개발담당관 盧弘吉 ▲비상계획관실 金鍾京(이상 전보) 以上 4월25일자 ▲연구관리과장 崔石植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파견 張載玉 以上 5월3일자.

超高純度 텅스텐 開發성공

動資硏, 99.999%의 최첨단 電子素材用

韓國動力資源硏究所(소장 金志同) 광물소재·분석센터 工程·精鍊部 劉孝信박사팀은 최첨단 전자소재용 초고순도 텅스텐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3년여의 연구끝에 이번에 개발된 텅스텐의 주요공정을 보면 大韓重石의 APT(Ammonium Para Tungstate : 텅스텐이 함유된 암모니움 화합물) 흰 분말에서 특히 우라늄, 토륨등의 불순물을 10ppb 이하로 낮추는등 용매추출과 煅燒 및 환원의 과정을 통하여 99.99%의 텅스텐분말을 개발하였고 다시 텅스텐분말을 압축,



〈高純度 텅스텐제품의 모습 : 우측끝이 浮遊帶정련후 텅스텐棒(99.999%) 이상〉

성형, 소결한후 浮遊帶 精鍊을 통해서 반도체제조에 쓰일 수 있는 99.999% 이상의 초고순도 텅스텐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텅스텐원석에서 99.9%의 텅스텐을 제조하였으며, 고순도 텅스텐제조기술은 개발되지 않아서 t당 17,000달러에 수출하고 다시 99.99%의 고순도 텅스텐을 日本등으로 부터 t당 120,000달러정도로 재수입, 사용하고 있어 외화낭비의 큰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국내 자원의 극대화는 물론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증대 도모와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高價 연구기자재 26점 기초연구지원센터서 구입

국내 基礎科學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위해 지난해 8월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소장 金顯男)가 발족후 첫 사업으로 전국 각 대학이 공동 활용할 高價 정밀연구기자재의 구입계획을 1차로 확정했다.

전국 50개 대학 기초과학연구소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은 기자재 3백96종중 센터가 이번에 구입키로 한 것은 핵자기공명분석기 DNA 합성장치등 총 26점, 4백99만달러에 이른다.

지원센터가 최근 전국 50개 대학을 대상으로한 기자재 보유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대학에 비치된 3만달러이상의 고가 정밀기기는 X선회절장치 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등 총 315점으로 도입가격이 2천만달러 규모이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78년 문교부의 각 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사업이 시작된 78년이래 그나마 꾸준히 도입되고 있으나 사립대의 경우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도입실적이 극히 저조해 3~8년의 제품수명을 넘긴 장비들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지난 83년 이후 연구장비 도입실적이 전무한 대학도 8개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655개 課題에 27억 지원

科學財團, 기초연구과제 선정

韓國科學財團은 올해 655건의 일반 기초연구과제에 2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지난해 9월 전국 93개 대학으로부터 접수된 1,239개 과제를 대상으로 1천9백여명이 참여한 동료평가와 11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

이번 기초연구지원과제 선정결과 충남대가 작년에 이어 수혜율 상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는 大德연구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간의 학술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지방소재대학들의 연구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단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學·硏·産협동연구사업과 연구센터 설치사업도 더욱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화학공학회

韓國化學工學會는 4월21일~22일 양일간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1989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金炳珍 회장 후임에 朴源熹박사(KAIST 연구본부소장)를 제2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李洪錫(동학회 상근부회장) 金永旭(아주대교수) 權奭明(동양화학공업〈주〉부사장)을 선출하고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학술발표회의에선 日東京大 Kunio Yoshida교수의 「Hydrogen Energy」등 2편의 초청강연, 화학연구소 김상환씨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등 특강 9편과 「에너지/환경」분과등 14개분과에서 「막분리 공정을 이용한 산업공해처리의 현황」등 151편의 일반연제발표가 있었다.

이와함께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전국 工程과장/技術과장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특별발표로 「상온 핵융합 Session」을 마련, 최근 외국의 일부학자들이 상온핵융합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때를 맞추어 국내 학자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학문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동학회는 또 공장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운전의 최적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중심지인 울산과 여천에서 「공장의 전산자동화」에 관한 계속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5월18일~19일은 울산 코리아나호텔에서, 5월25~26일은 여수 비치호텔에서 기업의 공정기술분야 종사자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영양학회

韓國營養學會(회장 金淑喜)는 오는 8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韓國국제영양산업전(KONEX '89)을 개최한다.

곡류, 채소류등 일반식품에서부터 가공식품, 음식재료, 식·음료관련기자재, 음료제조기공기기 및 설비는 물론 의약품과 관련 서적 및 출판물, 그리고 관련서비스산업등이 소개될 이번 전시회는 영양식품관, 음료산업관, 과학기술기자재산업관, 의약품, 서적·서비스산업관의 4개 전문독립관으로 구분, 전시된다.

특히 이번 KONEX '89에는 세계 1백여개국으로부터 4천여명의 영양학자 및 관련 바이어가 내한하게 되며 제14차 국제 영양학회 서울 총회 및 국제학술세미나가 함께 개최됨으로써 국내외 영양산업의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물리학회

韓國物理學會 제13대 회장에 安世熙연세대교수가 취임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李柱天교수(한국과학기술원)·趙成浩교수(고려대)·金榮德교수(서강대)·金浩吉교수(포항공대)·尹祥鉉교수(전남대)가 취임했다.

동학회는 4월29일~30일 양일간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석상에서 지난해 선출한 회장단의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들의 임기는 91년4월 30일 까지이다.

동학회는 또 총회와 함께 춘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 초청강연 33편을 비롯 「입자핵물리학분과」등 8개분과에서 30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학회

大韓看護學會(회장 李平淑)는 4월27일 고려대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과학의 날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東洋哲學과 健康」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김홍호전이화여대교수가 「동양철학으로 본 건강관」 이영자부산대교수가 「간호이론과 동양사상」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朴胤成)는 4월2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8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통과시키는 한편,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대한건축학회상 수상자로 崔椿煥명지대부총장과 李明浩중앙대 대학원장에게 학술상, 吳敏洙롯데호텔 건축담당이사에게 기술상, 鄭慶雲동국대대우교수와 宋基德대한건축사협회회장에게는 작품상이, 金東賢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에게 특별상(南坡 朴學在상)이 수여됐다.

한편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선 日本 大阪시립대 住田昌二교수의 「住양식의 근대화에 관한 日·韓비교」등 특별강연 4편과 「계획 및 설계」등 7개분과에서 「재활의료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기초적연구」등 112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동학회는 또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설계작품발표회를 신축건축회관 2층홀에서 가졌는데 이번 발표회에는 전국 17개대학의 졸업작품이 전시됐다.

建築會館 준공도

동학회는 또 숙원이던 建築會館 준공식을 4월27일 朴胤成회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사당동 현지에서 거행했다.

총 9억9천7백여만원을 들여 지난 87년 7월 착공한 아래 2년여만에 완공을 본 이 건축회관은 대지 150평에 연건평 401평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그런데 이 회관건립은 회원을 비롯 관련기관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새 회관의 주소는 동작구 사당동 1044-34 전화 : 588-1041

한국정보과학회

韓國情報科學會(회장 李哲熙)는 4월14~15 양일간 부산대학교에서 제16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포항공대 李正淋교수의 「컴퓨터비젼과 Perceptron」 미국 DEC 부사장인 William R. Demmer박사의 「Identifying and Addressing Changes User Needs」를 주제로한 두편의 초청강연과 「2천년대의 컴퓨터에 관한 워크숍」을 비롯하며 「소프트웨어공학」등 12개 분과에서 111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정보산업 육성 및 학회발전에 공헌한 郭鍾善씨(과학기술처)등에게 감사패를, 金宗相전임회장(서울대교수)등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제8회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88년도 4/4분기 추경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8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했는데 특히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 세계 정보처리/통신학술회의(WONCON/INFOR '89)를 개최키로 했다.

6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힐튼인터내셔날호텔에서 개최되는 이 학술회의는 세계 10대석학 초청강연을 비롯 「PA & Computer」등 4개 전문가토론회, 최신기법 강습회, 최신연구논문발표회와 함께 국내 주요업체다수가 참여하는 정보산업관련전시회로 꾸며진다.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康昌彦)는 4월2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신의 날 기념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텔레마띠끄문명과 정보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방송문화의 새로운 위상정립(서정우/연세대교수)」 「한국우편발달사 –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기능의 변천(진기홍/통신사학자)」 「한글정보화의 당면제(유경희/DACOM연구위 「기호학적으로 본 한국문화(최현무/서강대교수)」 「지역정보문화권 형성에 필요한 선행과제(송인성/전남대교수)」 등 6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기상학회

韓國氣象學會(회장 金正禹)는 中央氣象台를 氣象廳으로 승격시키고 기상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켜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학회는 이 건의서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해마다 증가,연평균 2천억원에 이르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상기후 변동과 생태계변화 ▲기상정보의 활동분야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분야에 까지 확대되는 등 기상분야의 업무가 단순한 일기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기능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나 행정조직이 이를 뒷받침하 못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주장, 제5공화국때 약속한 기상청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회장 丁明植)는 4월28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7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강연회를 개최, 지난 3월22일 지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임된 文濟吉회장(건국대 부총장)과 南宣祐부회장(동국대 공대학장)을 認准하고 정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8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에 이어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으며 새토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존 토목회관(중구 명동소재) 매각에 따른 협의가 있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학회상을 시상, 安守漢 서울대교수와 全競烈 〈주〉유신설계공단회장에게 공로상, 李元福 홍익대교수와 鄭永植 울산대교수에게 학술상, 金光男 포철건설본부부본부장등 4명에게 기술상, 李啓鶴전남대교수와 洪元杓중대교수에게는 논문상이 수여됐다.

한편 학술강연회에선 고려대 서진영박사의 「한국의 북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한양대 安錫教교수의 「한국의 경제적 북방정책(현황과 전망)」등 5편의 학술강연이 있었다.

대한기생충학회

大韓寄生蟲學會(회장 趙昇烈) 금년도 춘계학술대회가 4월28일 춘천 한림의대의학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한국의 폐吸蟲病」에 대한 특강과 「이질아메바배지 공존세균이 아메바성 간농양 형성에 미치는 영향」등 21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대한방사선의학회

大韓放射線醫學會(회장 徐源赫)는 4월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금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급성 및 아급성 뇌실질 출혈의 고자장 자기공명영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등 3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金駿洙)는 4월14일 한국학술진흥재단 5층강당에서 금년도 춘계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90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회장에 白奉基한국미쉐린타이어 한국지사장, 부회장은 李鍾國 〈주〉안국화학전무이사·尹聖烈덕인화학공업사대표이사·鄭建和〈주〉화승화학전무이사를 각각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등도 개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주〉낫소의 宋在文대표이사에게 고무기술공로상, 「PMMA/SAN 혼합물의 열적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동아대 孫晋彦교수팀에게 우수보문상을 수여하고 학회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河興燮 대흥실리콘상사 사장등 5명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자리에서는 또 제14회 고무기술 진보상 연구과제를 「耐오존性 및 引張특성이 좋은 백색고무」로 정하고 응모규정도 발표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선 동아대 薛秀德박사의 「고무와 폴리머의 劣化에 관한 연구」에 관한 특별강연과 「용액중합 SBR의 미세분자구조가 배합고무의 점탄성성질에 미치는 영향」등 세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4차 아시아·태평양 齒科會議 및 제39차 大韓齒科醫師協會 종합학술대회가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 회원국을 포함, 전세계 21개국에서 총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6일부터 30일까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亞·太치과회의는 회원국대표자회의와 학술강연, 치과기자재전시회등으로 진행됐는데 「세계로 발전하는 치과의학」을 주제로 한 학술강연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치과의학연구결과와 각종 임상연구결과등을 발표하고 WHO합동세미나를 가졌다.

한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치과기자재전시회에는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등 세계 14개국에서 1백30여개 업체가 참여, 세계 각국의 치과계의 신소재및 새로운 기기들이 선을 보였다.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孫明煥)는 오는 90년 7월 6~7 양일간 서울에서 『Fracture and Strength '90』을 개최한다.

日本機械學會와 공동으로 개최할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금속, 신재료, 복합재료, 전자재료, 생체재료, 요업재료, 암석, 석탄금속재료 ▲재료의 기계적거동, 재료시험 및 평가, 피로 및 크립상태에서 구조물의 수명예측, ▲컴퓨터기법을 통한 데이타수집 및 평가, 기계요소의 건전성평가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기술동향등 기술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편 동학회는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영문초록을 7월15일까지 접수하는데 문의사항은 연세대 기계공학과 李康鏞교수(전화 392-6275)에게 하면된다.

한국주조공학회

韓國鑄造工學會(회장 安斗植)는 4월21~22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금년도 임시총회, 춘계주물기술강연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國際鑄物大會(WFC)를 오는 1997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회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日本福島製鋼〈주〉 金子淳씨의 「주물공업에 있어서 과학기술 및 기능」등 두편의 초청강연, 「과냉된 액상금속의 핵생성」등 4편의 강연과 「흑연주철의 열전도율에 관한 연구」등 6편의 일반연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학술대회에 이어 영화금속공업〈주〉, 부산주공〈주〉, 〈주〉금성사 사상공장 견학회도 가졌다.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韓國經營科學會(회장 朴淳達)는 大韓産業工學會(회장 元震喜)와 공동으로 4월28~29 양일간 포항공과대학과 산업과학기술연연구소에서 금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産學研 협동과 IE/MS의 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첫날인 28일에는 日 東京大 咸仁英박사의 「일본기업에서의 기술경영관리」에 관한 특별강연과 패널디스커션이 있은 다음 「생산자동화」「품질 및 신뢰성」「인공지능/ES」등 18개분과에서 「다중로보트 시스템의 충돌회피 동작계획에 관한 연구」등 87편의 연구논문을 29일까지 발표했다.

한국우주과학회

韓國宇宙科學會(회장 羅逸星) 금년도 봄 학술대회가 5월6일 연세대 과학관에서 열려 초청강연 1편과 12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선 네브라스카대학의 K. C. Leung 교수의 초청강연과 「우주탐사와 성단」「인공위성」「항성계」등 3개분과에서 「구상성단의 DDO색지수와 중원소함량의 상관관계」등 12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원자력학회·원자력산업회의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安秉華)가 韓國原子力學會(회장 韓弼淳)와 공동주최하는 제4회 연차회의및 원자력압력용기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이 4월19일부터 21일까지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원자력발전기기의 신뢰성향상」을 기조테마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美, 日, 佛등 12개국에서 130여명의 관련전문가와 국내전문가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2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原子力發電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원자력설비의 신뢰성향상문제를 다루므로써 안전성확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이날 李祥羲과기처장관은 개회인사를 통해 원자력산업이 국민의 이해와 수용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科技處는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하고 ▲原電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규제를 위한 한국의 독자적코드를 개발하며 ▲안전규제요원의 양성과 확보에 힘쓰는 한편 ▲원전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내용등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향상에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한스 브릭스박사는 특별강연에서 최근 세계적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및 온실효과와 관련하여 그 주범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原電 추진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원전에서는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이 나오지 않으며 방사물폐기물도 화력발전의 폐기물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격리처분하면 환경오염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석탄, 석유, 가스와 원자력의 균형있는 공존을 제창했다.

공기조화냉동공학회

空氣調和冷凍工學會(회장 崔相弘)는 4월20일 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T. A. B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건물과 T. A. B(방규원/에너콘Eng)」「T. A. B설계 사례발표를 통한 기술강연(정창욱/한미기술용역)」「원자력발전소의 T. A. B(이선옥/우원설비)」등이 강의됐다.

동학회는 또 4월27일에는 스파이렉코 사코 부평공장에서 금년도 공장방문강연회를 가졌는데 이 강연회에선 스파이렉코 사코 부평공장의 파이롯트 증기시스템 작동시험 견학이 있은다음 「열량계에 의한 난방비 부과 방식연구(백춘기/주택공사)」 등이 강연됐다.

대한전기협회

大韓電氣協會(회장 安秉華)는 최근 전기설비의 자동화 및 고도의 정밀화 추세에 따라 자동제어 응용에 관한 선진기술의 보급으로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독 A.B.B社의 金昌德 수석연구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는다.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5일간 대한전기협회강당에서 개최될 이 세미나에서는 「최신 전력용반도체소지의 개황」「전력용 반도체의 특성」「Power-Thyristor, Transistors Diode」「자동제어회로」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한소아과학회

大韓小兒科學會(회장 陳東植)는 4월28~29일 양일간 용평 리조트 드레곤 벨리호텔에서 제39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소아알레르기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와함께 「日本아동에 있어서 학교공포와 정신신체질환(야마시타 푸미오/日 구루메의대교수)」등 3편의 초정강연이 있었으며 일반 및 전공회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科總 회원단체 5月 학술행사 계획 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한국기상학회	김정우	Asai교수초청 세미나	5. 1	연세대학교
한국생약학회	이인난	과학의 달 및 창립20주년기념 학술대회	5. 2~ 3	캐피탈호텔
대한혈액학회	김길영	춘계학술대회	5. 4	호텔신라
한국곤충학회	박성호	춘계학술발표회	5. 5~ 6	제주대학교
한국우주과학회	나일성	총회 및 학술대회	5.6	연세대학교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위생부문 학술강연회	5.11	과학기술회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시형	춘계학술대회	5.11	신라호텔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서울지역 전화국번호 확장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롯데호텔
대한면역학회	하대유	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한국통계학회	이재창	조사, 통계연구발표회	5.13	동국대학교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상훈	총회 및 학술발표회	〃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대한내과학회	김종숙	춘계학술대회	〃	전북대학교
대한산업공학회	원진희	외국저명과학자초청 세미나	5.15~20	고려대학교
한국폐기물학회	이승무	총회 및 연구발표회	5.18	국립환경연구원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춘계학술대회	5.19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대기보전학회	차철환	춘계학술발표회	〃	국립환경연구원
대한광산지질학회	김종환	공동학술강연회	5.20	한국전력(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정현채	춘계학술발표회 및 임시총회	5.20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알레르기학회	강석영	총계학술대회	〃	부산파라다이스호텔
한국유전학회	박상대	춘계유전학심포지움	〃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응용곤충학회	우건석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서울대학교
한국어업기술학회	장지원	총회 및 학술대회	5.20~21	국립수산진흥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반도체 재료 및 연구회합동 학술발표회	5.20	인천대학교
한국통계학회	이재창	통계상담연구발표회	〃	서울대학교
한국임상수의학회	성재기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서울대학교
한국수산학회	이강호	춘계학술회의	〃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천문학회	천문석	춘계학술발표회	〃	한국교원대학교
대한외과학회	홍선희	춘계학술대회	〃	유성관광호텔
한국항해학회	윤여정	춘계학술발표회	〃	한국해양대학
한국섬유공학회	송석규	섬유공학교육	5.23~26	과학기술회관
한국고분자학회	안태완	고분자토론회	5.25~27	유성관광호텔
한국과학사학회	이 찬	역사학대회	5.25~26	서강대학교
대한예방의학회	김두희	춘계학술대회	5.26~27	온양관광호텔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한국고무학회	김준수	제1차 고무기술세미나	5.26~27	학술진흥재단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에너지절약강습회	5.26	과학기술회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신동소	제11회 국제펄프종이 기술 세미나	〃	한국종합전시장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김은영	춘계학술대회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조경국	학술강연회	〃	자동차공업회관
대한전기학회	박영문	전력전자연구회 심포지움	5.26~27	쉐라톤워커힐호텔
대한원격탐사학회	이상수	S. MARDY박사 초청강연회	5.26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초학회	노재영	제21회 학술발표회	〃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통계학회	이재창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5.26~27	계명대학교
대한결핵학회	홍영표	제68차 춘계학술대회	5.27	광주신양파크호텔
한국작물학회	박래경	제2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강원대학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성창섭	춘계학술대회	〃	전남대학교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열 및 유체역학부문 학술강연회	〃	서울대학교
대한면역학회	하대유	춘계학술대회	〃	경북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광파 및 양자전자공학연구회 합동학술발표회	5.27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정보문화의 달 대토론회및 춘계 종합학술발표회	〃	연세대학교
대한생리학회	고일섭	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한국통계학회	이재창	통계계산연구발표회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공업경영학회	이근희	춘계학술발표회	〃	부산
한국가축번식학회	배대식	임시총회 및 세미나	〃	축산시험장
대산수의학회	이창업	춘계학술 심포지움	〃	프레스센터
한국과학교육학회	김영식	한·영과학교육 심포지움	5.29	교육개발원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趙慶國)는 과학의 날인 4월21일 자동차공업회관 강당에서 기관, 연료 및 윤활부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점화 연소기관 녹킹현상의 특징」「초음파 인젝터를 이용한 디젤 분무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배기규제 강화에 따른 무연가솔린의 성상 및 현황고찰」「자동차엔진 동향과 석유제품 품질의 인과관계」등 13편의 연제가 강연됐다.

대한순환기학회

大韓循環器學會(회장 柳彦浩) 금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가 4월29일 대전 유성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장질환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과 연수강좌로 진행됐는데 심포지움에선 「Pacemaker 시술」「PTCA」「Endocarditis」「Balloon Valvuloplasty」「Recent Trend of anti-hypertensive therapy」등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연수강좌에서는 「혈액학적 적응과 응용」등 6개 강좌가 강의됐다.

한국고분자학회

韓國高分子學會(회장 安泰玩)는 오는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능성고분자의 분자설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전세계 고분자 관련 과학기술자간의 상호교류 및 고분자 소재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되는 이 심포지움에는 美·日등 30여개국에서 3백여명의 해외과학자와 국내에서 3백여명등 6백여명의 관련전문가가 참가, ▲고분자합성(액정고분자포함) ▲감광성고분자 ▲분리기능성고분자 ▲의료용고분자 ▲전기특성고분자 등에 관련된 280여편의 최신 연구논문 발표와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美 Polytechnic대 H. F. Mark교수를 비롯 獨 Mainz대 R.C. Schulz교수, 日本 Kyoto대 T.Saegusa교수와 〈주〉럭키 최남석박사의 초청강연도 있게 된다.

한국섬유공학회

韓國纖維工學會(회장 宋石圭)는 오는 6월21~23일 3일간 과총회의실에서 제7회 섬유공학 교육강좌를 개최한다.

「니트의 하이테크」를 주제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編糸의 결점과 편성성」「니트공장관리를 위한 품질관리」「編機의 새로운 개발동향」「니트의 신패션경향」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된다.

한편 동학회는 또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섬유신소재」를 소재로한 하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약학회

大韓藥學會(회장 禹源植)는 4월21~22 양일간 동덕여대 약학대학에서 금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항암제개발」에 관한 심포지움, 특강 4편, 학술강연 28편과 포스터발표를 실시했다.

특히 「항암제 개발」에 관한 심포지움에선 이은방교수(서울대 생약연구소)의 문제제기에 이어 장자준박사(원자력병원)의 「항암제 개발에 이용되는 in vivo모델」 박재갑교수(서울대 의대)의 「인체암 세포주의 수립 및 이용」 Ven L. Narayanan (NCI, U.S.A)의 「Status of the New Anticancer and Anti-AIDS Drug Discovery Program of the U. S. National Cancer Institute」 손진희박사(국립의료원 해부병리과)의 「한국인의 암질환 통계」등 주제발표가 있은후 김충섭박사(유한양행중앙연구소)가 결론을 발표했다.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鶴起) 금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가 4월28~29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열려 특강 5편과 15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日本 東京大 佐野信雄박사의 「고온에 있어서 Ca화합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측정」등 강연 5편과 「기상반응법에 의한 초미분 질화붕소의 제조에 관한 연구」등 157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移転안내

한국잠사학회

韓國蠶絲學會(회장 柳根燮)는 학회사무실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61 잠업시험장내로 옮겼다.

전화 : 〈0331〉 6-2183~5

한국생물과학협회

韓國生物科學協會(회장 鄭琮載) 사무실이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대사범대 과학교육과내로 옮겼다.

전화 : 362-6151-60
(交) 8292, 8289

한국기계연구소

韓國機械연구소(소장 金燻喆)는 4월24일 서울사무소를 관악구 봉천11동 1658-2 낙성대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

전화 : 888-4291~4,
8601-671~3